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반성적 고찰*

Reflective Study for Relevance of LIS Research in Korea

양 재 한(Jae-Han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1. 학문의 정체성 확립 |
| II. 우리 학문과 현장에 불어닥친 위기 | 2. 학문의 실천전략 |
| III. 학문 연구자들의 자성 | 3. 현장운동의 전개 |
| IV. 실천성 확보를 위한 전략 | V. 결론 |

초 록

우리나라 도서관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식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관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타 직종과의 무한경쟁 상황은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현장의 위기는 학문의 위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우리 학문과 현장에 불어닥친 위기는 어떠한 것이고, 그 동안 우리 학문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과 현장이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도서관운동, 도서관명칭변경, 문헌정보학 실천성, 문헌정보학 위기, 문헌정보학 정체성, 학술논문 글쓰기, 탈식민성

Abstracts

Today, the state of libraries in our country is behind the times and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o use libraries falls behind, too. Meanwhile, the workout and unlimited competitions have resulted in the crisis on the state of our libraries. The crisis on the state of our libraries has led to that of our discipline. In this paper, I study the causes of crises in our discipline and libraries. I suggest some methods to cure the illnesses.

Key Words : crisis on library, library movemen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이 글은 제8회 4개 학회공동학술대회(2000년 7월 6일 : 경주 조선포텔)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yjha@changwon-c.ac.kr

I. 서 론

의료계의 파업을 접하면서 이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본다. 내가 몸담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학문과 그 현장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각자 자고, 먹고, 일하는 일상의 과정에서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는다. 사서를 찾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찾으며,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될까. 살다가 의문이 생기면 찾는 곳이 도서관이며, 사서는 이러한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로 도서관과 사서를 찾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우리 국민은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미분화하여 집단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강하다.¹⁾ 개인적 삶의 미분화는 혈연, 학연, 지연 등 개인적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개인은 일상의 삶에서 일탈된 비밀상을 연출하는 극화(spectacle)에 몰두하고,²⁾ 남들에게 보이는 외양과 겉치레에 치중하는 체면과 눈치의 문화에 익숙해졌다.³⁾ 이러한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 국민의 일상의식 속에는 이용자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서관이라는 장치가 삶의 한 조각으로 자리잡을 겨를이 없었다. 학창시절 매일 도서관에 살다시피 한 공간이용자도 학교를 졸업하면 도서관이 그들의 삶의 한 조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고, 먹으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상의 조건 속에 도서관이 한 조각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소설, 신문, 영화 등 대중매체에 비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매체에서 도서관 업무는 쉽고 단조로우며, 세상과 격리되어 책이나 읽으며 지내는 편안함이 허용되는 공간이며, 사서는 정적이며 대민봉사에 소극적이고, 단조롭고 지루하며, 세상과는 격리된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묘사되고 있다.⁴⁾

1)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79. 183쪽.

2) 비밀상을 연출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환갑을 맞은 부모에게 적금 들어온 돈을 다 털어 마련해 드린 화려한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은 마침내 최상의 효를 다하는 듯한 충만감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일탈된 경우를 말한다.

3) 이영자, 「의식의 일상성」, 「한국인의 일상문화」, 서울: 한울, 1996. 19-28쪽.

4) 대중매체 속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에 대하여 최근에 다음의 글들이 발표되었다. 조찬식·박민영,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소설과 영화 속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54권 2호(1999), 103-122쪽. 박미향,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서, 그리고 도서관 - 첫 번째 시립도서관 속의 사람들」, 『국회도서관 소식』, 18(1997), 17-20쪽. 송승섭, 「한국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 문화』, 제35권 2호(1994), 15-46쪽. 허선, 「우리나라 신문에 비친 도서관상」, 『도서관문화』, 제38권 1호(1997), 3-19쪽.

인간의 이해와 인식은 혁명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지식사회학의 관점처럼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그 동안 도서관을 이용해 온 이용자들의 직·간접 이용경험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 실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계몽의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상이라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도서관 이용이라는 한 조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혼치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장을 가진 학문인 문헌정보학은 어떠한가. 조혜정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이러한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근대란 '기술의 진보'와 '서구화'를 의미한다. 문헌정보학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 즉 우리의 도서관 현상을 설명할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구인들이 그들의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 준 이론들을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형편인가.

조동일은 우리 학계에는 네 가지 학풍이 있다고 한다. 남의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는 '수입학', 남의 학문 가져와서 나무라는 '시비학',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는 '자립학',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넘어서는 '창조학'이 그것이다.⁶⁾ 우리 문헌정보학이 근대성을 확립했다함은 수입학과 시비학의 범주를 넘어서 자립학과 창조학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우리의 현장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의식 또한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현장의 토양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타 직종과의 무한경쟁 상황은 우리의 현장을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현장이 위기를 맞는다 함은 현장을 보양하고 계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학문의 책임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학문의 위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우리 학문과 현장에 불어닥친 위기는 어떠한 것이고, 그 동안 우리 학문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과 현장이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실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2. 22쪽.

6)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30-56쪽.

II. 우리 학문과 현장에 불어닥친 위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다. 이와 동시에 도서관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도 발전될 것이라는 주장을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우리 문헌정보학은 독립된 학과의 형태가 아닌 학부제 하에서 전공으로만 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취업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문헌정보학에 대한 교육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접학문과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 수요자들을 찾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할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⁷⁾

우리 현장은 어떠한가. 한 연구자는 ‘해체위기⁸⁾’라고 진단한다. 신자유주의 사상을 정책기저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엄습과 정보기술 발달의 영향은 우리의 현장을 ‘구조조정’, ‘명칭변경’, ‘민간위탁’, ‘조직통합’ 등으로 내몰면서 위협하고 있다.

우리 현장의 위기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의 「회원교편람」에 의하면 88개교 중 16개교의 도서관이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관’, ‘학술정보처’, ‘학술정보센터’, ‘정보관리처’, ‘정보지원처’로 명칭이 바뀌거나 전산소와 멀티미디어실 등과 통합되어 통합된 기관의 하나의 부서로 그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⁹⁾¹⁰⁾ 급기야는 지난 4월 30일 《도서관매일링리스트》에 올라온 ‘문헌정보학이 무시를 당하

- 7) 김정근, 「우리문헌정보학의 길: 거품 섞인 공격진술에서 내실 있는 방어전술로」,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 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2000. 1-10쪽. 연구자들이 ‘정보’와 ‘컴퓨터’를 앞세우고, ‘도서관’을 평가절하 하는 공격형 경영의 결과 학문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해 학문과 현장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 8) 윤희운, 「한국 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2호(1999), 29-54 쪽.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일부 행정가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도서관 없애기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 ‘민간위탁’, ‘명칭변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윤희운은 공공도서관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 9)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 대구: 동 협의회, 2000.
- 10)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대학도서관과 전산소의 통합과 학술정보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은 도서관 중심으로 통합되어 정보가 수집 제공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술이 더욱 좋아져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장의 지위도 부속기관장에서 본부 보직자와 동일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즉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통합은 위기라기 보다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황남규, 「대학도서관과 전산소의 통합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 2000년 6월 23일: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28-30쪽.)

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 한남대학교 학생의 글은¹¹⁾ 대학도서관이 유관기관과 통합되어 그 명칭이 변경될 경우 문헌정보학의 설 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어떠한가. 지난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이 있었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과거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3과(계) 체제에서 2개과(계)로 축소되어 서무과와 사서과로 재편되거나, 여러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 분관 체제를 도입하여 인력을 감축한 경우도 있다. 또한 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 하여 인력을 감축시킨 경우도 있어 이를 수치로 나타내어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한 사서직원수가 1998년도에 1,724명에서 1999년도에 1,718명으로, 2000년도에는 1,696명으로 도서관 수와 이용자 수의 증가에 비하여 사서직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¹²⁾

또한 행정자치부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역의 문화원에서 위탁관리 하는 도서관은 서울의 중랑구립도서관과 광진구립도서관, YMCA가 위탁관리하는 도서관은 광주시 서구문화센터¹³⁾, 강서구 지역정보센터가 위탁관리하는 강서구립정보도서관 등이 있다. 공단위탁은 의정부시립도서관, 파주시의 금촌, 문산, 법원도서관, 동두천시립도서관, 충북의 옥천도서관, 경북의 문경시립도서관, 성남시의 중원정보문화센터, 연천군립도서관 등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도 여러 곳이 있다.¹⁴⁾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自治團體事務의 民間委託推進指針」에 연도별 민간위탁 추진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도서관은 2001-2002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공영도매시장, 도로관리, 민간교육기능, 시험연구기능 등과 함께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제시하고 있다.¹⁵⁾ 이와 함께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명칭변경 현상은 평생학습법의 제

11) 전재춘, 「문헌정보학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매일링리스트」, 2000년 4월 30일.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 1999년 12월에 학술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난 후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이 부서의 책임자인 처장과의 대화내용이 올라와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제 학술정보관은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며, 문헌정보학과하고 학술정보관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되어 있다.

12) 이용훈, 「공공도서관 위기의 원인과 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 2000년 6월 23일 :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20-21쪽.

13) 서구문화센터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이 복합화 된 시설이다.

14) 이용훈, 앞의 글, 24-26쪽.

15) 行政自治部, 「自治團體事務의 民間委託推進指針」, 1999. 13쪽.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4호)

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립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명시된 사서직 관장 임용 조항을 피해가려는 일부 행정직 공무원의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명칭이 변경된 곳은 서울의 마포, 영등포, 고덕, 중계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춘천시립도서관이 강원평생교육정보관으로, 목포시립도서관이 목포시문화시설사업소로, 고흥공공도서관이 전남고흥사회교육관에 흡수 통합되었으며, 정읍공공도서관이 정읍학생복지회관으로, 이리공공도서관이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고양도서관이 고양문예회관으로, 구리시립도서관이 구리시민수련관으로, 충북학생도서관이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제천학생도서관이 제천학생회관으로, 군산시립도서관이 군산청소년회관으로, 평양시립도서관이 평양시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서귀포시립도서관이 서귀포시종합문예진흥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16개 도서관이 그 명칭을 잃어버렸다. 이와 함께 금호교육문화회관이나 분당정보문화센터와 같은 곳은 처음부터 명칭을 바뀌게 관한 곳이다. 다행히 도서관계와 학계의 노력으로 완도군립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은 그 명칭이 도서관으로 환원된 경우이다.¹⁶⁾

이렇게 주변환경이 급변하는 데 학계와 현장은 적절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는가. 의료계에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듯이 우리 학계와 현장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가.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현장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장치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까. 우리의 현장은 아직 혼돈의 상태를 헤매고 있다. 개척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우리 현장에 붙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을 둘러싼 외부요인들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현장을 연구하는 학문의 실천성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장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문제는 그 주제만 하더라도 한편의 방대한 분량의 논문에 해당되므로 우리 학문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다루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현장은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은 현대를 넘어 탈근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천성 있는 학문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성을 하고자 한다.

16) 이용훈, 앞의 글, 22-24쪽.

Ⅲ. 학문 연구자들의 자성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와 약사들의 집단대응 행동을 보면서, 의학과 약학이란 학문이 그들의 현장인 병원과 약국과의 밀착성을 느끼게 한다. 그들 학문의 정체성과 실천성을 엿보게 하며, 현장의 운동성도 엿보게 한다. 또한 그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도 엿보게 한다. 우리 학문도 이들 학문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진 학문이다. 우리의 현장이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학계와 현장의 상황인식은 다소 안일하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단편적, 산발적이며,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문은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나름의 자생적 언어를 만들어 왔던가. 서구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으니 수입해 적용할 대응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학문 연구의 '근대성' 문제로 귀결이 된다. 즉 우리 문헌정보학의 '식민성의 극복', '탈식민성의 획득', '근대성의 확립'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 즉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도서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생산해 왔던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의 문헌정보학 연구의 출발점은 학과 설립을 기준으로 할 때 1957년 연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년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 이후 40여 년이 지나, 학부 과정이 32개 대학, 전문대학 과정이 8개 대학, 석사과정인 21개 대학, 교육대학원이 15개 대학, 박사과정이 9개 대학, 사서교육원이 3개 대학에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강단인력과, 석·박사 과정 학생 수는 천 여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학술활동의 장도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등 5개나 된다. 이들 학회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한국비블리아 라는 학회지를 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 발췌발표회, 워크숍 등의 학술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종과

17) 박사과정이 개설된 곳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부산대, 상명대, 전남대, 경북대, 계명대 등 9개 대학이다. 석사과정이 개설된 곳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북대, 상명대, 숙명여대, 청주대, 계명대, 서울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명지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주대, 동덕여대, 대구대, 한남대, 한성대, 전북대 등 21개 대학이다.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곳은 이화여대, 한양대, 공주대, 상명대, 명지대, 청주대, 경기대, 대전대, 신라대, 중앙대, 계명대, 성균관대, 부산대, 전북대, 대구대 등 15대학이다. 전문대학 과정이 개설된 곳은 숭의여대, 부산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계명문화대학, 동부산대학, 창원전문대학, 대림대학, 동원대학 등 8개 대학이다. 사서교육원이 개설된 대학이 성균관대, 계명대, 부산여대 등 3곳에 개설되어 있다.

지역별로 각 종 단체가 결성되어 회보와 소식지를 간행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주 연구대상인 도서관은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논문수의 증가만큼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발표된 글들이 동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며, 그들의 현장업무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체로 부정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자의 체험과 글이 겹도는, 말과 글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지적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겹도는 구조에서 발표된 글들은 도서관 현장을 변혁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과 학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⁸⁾

그 동안 많은 글들이 한국의 도서관 현장의 문제에 미국식 해법을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의 도서관 현장을 튼튼하게 살찌울 한국적 문헌정보학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의 글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배움의 회복은 먼저 현장과 학계의 왜곡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이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민과 현장의 실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단을 떠올리면 듀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수업의 내용도 거의 전부가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보다는 유학 당시 배워왔던 내용에 대한 재탕과 더불어 고고한 교수집단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가 직장인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반사회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학계는 현장사서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으로 현장의 현 실태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선진문물을 보고 배운 입장에서는 현장의 현실이라는 것이 학문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¹⁹⁾

위의 글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한국도서관 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식 해법의 사용은 현장 사서가 자신이 처한 현실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기 전, 한국 문헌정보학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이봉순, 김세익, 천혜봉, 최성진, 이춘희 등은²⁰⁾ 그들의 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1970,

18)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요지』, 1996년 6월 21일 - 22 일 : 유성호텔, 10쪽.

19) 이해연,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공학회 교안 모임』, 1997. 11-12쪽.

20) 이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다음의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 한울, 1998. 11-17쪽.

80년대를 거치면서 기능주의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학계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자세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목소리는 최성진, 김정근, 부산대학교 공동작업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성진은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와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란 글에서, 김정근과 부산대학교 공동작업실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글은 이러한 입장을 기본자세로 하여 발표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지식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해 온 잘못된 관습을 청산하고, 이 나라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세계문헌정보학의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발점을 마련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학문의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입에서 생산으로 바꿀 때가 된 것이다.²¹⁾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 현실성이 높은 학문이므로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여야 하며, 한국의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은 '지적기반'의 부족이며, 이들 지적기반을 제공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이다.²²⁾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도서관 현실에 대한 치열한 지적고민을 결여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의 도서관이 처해있는 복합적인 상황,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깊이 있게 다각도로 관찰, 분석하지 않고 피상적인 관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의 강단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며 배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론의 권위에만 의존하여 연구자들이 타성에 젖은 연구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혹은 방법이 인기가 있으면 너도나도 그 쪽을 따라가서 유행처럼 되어버리는 경향은 복잡 다기한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규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²³⁾

우리나라 도서관이 처해있는 개척기적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도서관의 탈실물 자원화, 탈기관화의 논의는 전근대적인 우리의 도서관 현장을 마치 근대화된 서구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논리로 자칫 도서관 현장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예가 소장과 접근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미래도서관 관련 담론²⁴⁾과 대학도서관과 전산소 통합과 관련된 담론에서 발견된다. 과거 전산소는 등록, 학사, 인사, 회계처리 업무 등

21) 崔成眞,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蒼史李春熙教授停年記念論叢』, 1993. 82쪽.

22)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5. 7쪽.

23)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한국 문헌정보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학기논고집』, 제2집(1992), 142쪽.

24)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담론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면 된다. 김정근 엮음,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1997.

에 치중하였다. 정보환경의 변화로 전산소는 근·원거리 통신망 구축을 통해 교수나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전산(academic computing)업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전산소가 추진하는 캠퍼스의 종합정보화 작업과 도서관 측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도서관 작업은 학술공동체에 전자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도서관과 전산소의 조직통합에 관한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를 전후하여 활발히 논의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이 교수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도서관에서의 전산소와의 통합은 당연히 도서관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남대, 아주대, 포항공대, 신라대, 숭실대, KAIST 등에서 전산소 등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통합시 도서관 중심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가. 사서직의 위상이 예전보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전산소의 관심은 데이터와 정보이지만 도서관의 관심은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가. 대체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보기술을 숭상하고 내용보다는 속도의 조금함을 우선하는 우리의 현 상황으로 인해 사서직과 도서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현장의 기초가 미약한 상태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과 대학도서관과 전산소와의 통합과 관련된 담론에서 탈실물자원화, 탈기관화에 대한 과도한 주장은 우리 현장 자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의 한 원로학자는 조심스런 처방을 내리고 있다.

우리 학문의 위기는 그 연구자들이 학문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한다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문헌정보학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Allan D. Pratt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마디로 기록자료(graphic records)의 수집-보존-조직-확산(Collection, Preservation, Organization, Dissemination = CPOD)의 연속체이다. 이 연속체를 강화하고 현대화·첨단화 시켜나가는 일이 실체와 관련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실물자원(physical resources) 중심으로, 그리고 절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기관(institution)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땅의 사정은 서양과 다르다는 것이다.²⁵⁾

우리 현장의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는 우리의 현장이 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25) 김정근 엮음,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 태일사, 2000. 5-6쪽.

IV. 실천성 확보를 위한 전략

우리 문헌정보학이 실천성을 확보하려면, 문헌정보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라는 '학문의 정체성'과, 이것을 어떤 방법과 기술로 구체화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전략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현장이 아직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린 상황이 아니므로 '현장의 운동성'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학문의 정체성 확립

한 학문의 성격은 절대불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학문이 처해 있는 터전과 때에 따라 학문의 성격은 변화한다. 특히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은 더욱 그러하며, 응용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문헌정보학도 그러하다.

문헌정보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여러 사회현상 중에서 도서관 현상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회현상 중에서 지식과 정보 유통과 관련된 제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으로 도서관은 이러한 현상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전자는 기관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고, 후자는 탈기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전자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는²⁶⁾ 이 땅의 문헌정보학은 우리의 현장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우리의 현재 상황은 이 땅에 현장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내적 실체 확립에 주력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단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몰아닥친 학문의 위기는 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전산학, 경영학, 언론학과 같은 사회적으로 뜨는 학문의 한 모퉁이를 붙잡고 환상을 가진 거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장은 전근대적인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은 근대를 넘어 탈근대를 넘나들고 있다는 자성을 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²⁷⁾은 교육수요자와 취업시장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78년

26) 이러한 입장에서 쓴 이들의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崔成眞,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蒼史李春熙教授停年記念論叢』, 1993. 82-111쪽. 김정근,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거품 섞인 공격전술에서 내심 있는 방어전술로」,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2000. 3-10쪽.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한울, 1998.

27) 이러한 주장을 펴는 학자는 우리 학문 내에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학문의 외연을 넓혀 학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로운 취업시장을 개척하여 위기의 학문을 건져야 한다고 한다.

부터 1986년까지 Columbia 대학의 library school을 비롯하여 8개의 주요 문헌정보학과들이 폐교되었다. 그 이후 학과의 명칭에서 'library'자를 떼어내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는 교육 수요자의 감퇴로 문헌정보학을 도서관이라는 기관중심적인 학문에서 탈기관적인 학문으로 그 실천 영역을 확대하여 생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입장에서 서 있는 학자들은 문헌정보학이란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제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구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학문'으로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화두였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는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유통현상 중에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도서관학(Library Science)에서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학명이 개명된 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싫든 좋든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바탕으로 출발된 학문이다. 최성진은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학문이며, 자기가 하는 학문도 다른 학과의 교수들이 하는 학문처럼 학문성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리한 시도를 한 결과 학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한다.²⁸⁾

김정근은 그 동안 학문의 과도한 '공격경영'²⁹⁾은 필요 이상으로 학문의 다양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는 학문정체성의 모호함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한다. 과도한 공격경영의 결과 우리 전통적인 영역을 우리 스스로 경시하다보니 타 학문영역에서 손을 뺐치고 있다. 가령 우리의 전통적인 영역인 독서교육은 국어과에서, 목록이나 색인은 컴퓨터 분야에서, 교육매체는 교육공학에서, 문서나 기록물관리는 행정학이나 역사학에서 손을 뺐치고 있으며, 우리가 '정보'와 '컴퓨터'란 이름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역들은 전산정보학자, 경영정보학자, 언론정보학자가 연구하는 꼬트머리를 잡고 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나는 탈기관화와 탈실물자원화의 논리는 자칫 허약한 우리의 현장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현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다. 즉 우리 학문은 그 현장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하는 학문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영역인 분류, 목록, 도서관경영, 장서개발과 함께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현대화·첨단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문의 실체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 타학문과 경쟁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보인다.

28) 崔成眞 앞의 글, 101-102쪽.

29) 김정근은 '이 땅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한편 '정보'와 '컴퓨터'를 앞세우고, 다른 한편 '도서관'을 평가절하하면서 오로지 21세기 정보시대, 지식기반사회를 노래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일종의 '공격형 경영'이라 표현하였다. (김정근 엮음, 앞의 책, 2000. 4쪽.)

2. 학문의 실천전략

우리의 현장이 근대성을 확보하려면 학문이 먼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되어야 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인들은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나름의 독특한 도서관 문화를 일구어 왔으며, 연구자들은 그들의 도서관 현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물을 생산하였다. 우리의 학문은 대체로 서구에서 생산한 이론을 수입하여 이를 보편적인 이론으로 대입하여 사용하는데 익숙하였고, 문헌정보학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의 도서관 현상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강단의 논리는 서구의 앞선 이론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요인은 현장과 강단을 왜곡시켜온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³⁰⁾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이 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여 한국적 문헌정보학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지금까지 서구의 시각에서 생산된 이론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서 탈피한 자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실천성 문제는 현장에서 논제 끌어올리기, 다양한 연구방법 도입하기, 실천성 있는 글쓰기 문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다.³¹⁾

논제의 선정은 한국의 도서관 현장에서 문제 거리로 떠오르는 것을 관찰한 후 거기에서 연구할 대상을 끌어 올려 연구 거리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성진은 한 연구에서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논문은 그가 조사한 논문 중 45.3%에 불과하며, 별로 관련이 없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전체의 54.7%나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²⁾ 그는 문헌정보학은 본래 봉사전문직 안에서 그 발전을 위하여 생겨났으며, 처음부터 학문성보다는 현장성이 높은 학문인데, 학문성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시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제가 현장에서 끌어 올렸더라도 그 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 문헌정보학은 한국의 도서관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동안의 연구는 도서관의 사회적 현상을 다루기보다는 기능적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여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동시에 양적 연구방법을 편향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있다.³³⁾ 이에 한상완, 이수상 등은 질적연구 방법도 도입하여 편향된 연구방법을 다양화

30) 이해연, 앞의 글, 9-13쪽.

31) 이 문제는 지난 4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김영기에 의해 한차례 논의된 바 있다. 김영기, 「한국문헌정보학의 실천성 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학술발표논문집』, 9집(2000), 27-46쪽.

32) 최성진, 앞의 글, 101쪽.

33) 이수상, 앞의 책, 46-49쪽.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문헌정보학은 사서, 이용자, 도서관 운영자로 대별되는 인간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이다. 통계중심의 양적인 연구방법은 인간의 상황인식이 주된 변수가 아닌 분야에 널리 적용하여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므로, 문헌정보학의 인간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는 부적절한 연구방법으로 보인다.

Hans Bleeker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해 온 실증 분석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의 글에서, 연구자로서 자신이 한 일이란 계산하고, 측정하고, 될 수 있는 한 멀리서 보이는 행동만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이 진짜는문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는 새로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결과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이유 및 유용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한 그의 글을 담아보자.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은 미끄럼틀보다 그네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네의 어떤 점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이나 측정으로 일관된 보고서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답을 얻으려면 어린이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거나 그들을 통계적으로 조작된 현실로 구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과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객관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린이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느끼고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서 현실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연구는 통계 분석적인 모형에 의해 나온 연구결과와는 달리 유용한 통찰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모두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는 까닭에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일과 그 이유 및 유용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³⁵⁾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던 연구방법들이 철학이나 사회현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방법론적 일원주의 사고가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인문, 사회과학분야 연구방법에서도 적용되어 주류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연구물들은 현장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³⁶⁾

다음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학술논문 글쓰기를 통한 실천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의 표현으로 글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 글쓰기는 자신과

34) 한상완, 「문명사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과 전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설립20주년 기념강연회 / 주제강연』, 2000년 5월 20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7쪽. 이수상, 위의 책, 48-49쪽.

35) L. S. Barritt 외, 『教育研究와 現象學的 接近』(洪基亨 역), 서울: 文音社, 1990. 10-12쪽.

36) 이수상, 앞의 책, 46쪽.

독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써야한다. 글쓰기와 독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글쓰기는 사치스런 낭비에 불과하다. 글쓰기는 자신의 삶과 삶의 표현이 되어야 글을 쓰는 본인뿐만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글은 쉬운 글쓰기에서 나오며, 독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에서 나온다. 논문이라고 해서 단조롭고 딱딱한 문체로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완전히 숨긴 채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학술논문 글쓰기에 대해 다음의 글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첫째, 학술활동은 오로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울타리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양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어양식까지 포함하는 '양식의 혁신'을 말하고 있다. 기존의 논문양식을 충실히 따라야만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필도 논문이 되고, 소설도 논문이 되고, 가상 시나리오도 논문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서 글을 쓰는 주체는 합리성이라는 권위의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상상력, 나의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셋째, 너와 나의 존재를 진솔하게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터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학문의 현실적합성이 추구될 수 있게 된다.³⁷⁾

새로운 글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근대 서구중심주의의 산물인 논문의 양식이 학문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중심주의, 원전중심주의에 얽매어 있는 학계의 해묵은 전통을 타파하고 혁신하여 우리 땅,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글과 학문의 길을 만들자고 외치는 무리들이 80년대 이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주역으로는 김영민(전주 한일신학대, 철학), 이왕주(부산대, 철학), 김승철(부산신학대, 철학), 신광현(서울대, 영문학), 김용욱(전 고려대교수, 한의사), 조동일(서울대, 국문학), 조혜정(연세대, 사회학), 김정근(부산대, 문헌정보학) 등이 있다.

김정근은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글에서 현재 문헌정보학계에 발표되는 글들이 도서관 현장은 한국적 상황인데 언어는 서구의 첨단을 달리고 있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식, 한국적, 주체적, 자기준거적, 실사구시적 글쓰기를 말하고 있다. 그가 바라본 기존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면을 들여다보자.

그런데 이상하다. 그 논문에 깊이가 있는가, 연구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되었는가, 관찰이 예리한가 따위는 대체로 묻지 않는다. 현장성이 있는가, 이 단계에서 이런 논문이 쓰였을 때 어떤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따위는 차라리 뒷전이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이 우리의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의 현실과는 완전히 겉도는 것인데도 형식만 맞으면 통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연구자들은 그 분위기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평소 연구자 자신이 쌓아온 상식과 교양의 체계, 관찰의 내용, 대화의 내용, 현장

37) 김정근·이수상,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1호(1997), 139-140쪽.

으로부터 얻어 읽게 된 보고서와 계획서 따위는 과학의 이름으로 연구의 영역에서 추방된다. 연구자는 갑자기 지금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의 체계를 벗어나 이른바 과학의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자신을 역사와 사회 속에서 연대의 줄이 끊긴 미야로 전락시켜 버린다. 나는 회의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학술논문 쓰기는 일의 과정인가 유희의 과정인가.³⁸⁾

자신의 삶과 삶이 걸도는 글쓰기는 하나의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원전에 기대어 타자화된 입장에서 쓴 글은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 개선에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글쓰기란 '자신의 주장을 펴서 시비적부를 가리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양식이 자유롭게 동원될 필요가 있으며, 글을 쓰는 본인이 타자화된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준거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적실성 있는 학문', '실천성 있는 학문', '타와 때에 적합한 학문', '현장과 의사소통하는 학문', '현장을 개선하는 학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현장 운동의 전개

학문의 정체성과 실천성 확보 문제와 함께 현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운동성의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화와 민주주의가 사상적 두 지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과거 중앙정부가 가지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지방분권 사상과 중앙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집행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 사상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³⁹⁾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여 단체자치를 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었지만 주민 참여에 의해 완성해 나가는 주민자치는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⁴⁰⁾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현장 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튼튼히 자리 잡도록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은 성립과정부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왜곡되었고, 도서관에 소장한 장서나 도구들도 지역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 한 예가 도서관의 서가에 쌓아둔 장서더미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서관의 서가는 장서의

38)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1996. 3쪽.

39) 金學魯, 『地方行政의 理論과 實際』(補訂版), 서울: 博英社, 1997. 25쪽.

40) 단체자치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을 자치단체가 어느 만큼의 자치권을 나눠 갖느냐 하는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법규규정을 통한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말하는 반면, 주민자치란 법적 규정과는 관계없이 주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주민과의 관계 또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자치권을 말한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축적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 사정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쌓인 장서더미는 ‘반역사성’, ‘반사회성’, ‘반사회과학적’, ‘유심론적’, ‘반공·보수·우익’, ‘사대’ 등의 개념이 내포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이를 읽는 독자들은 이들 장서더미를 통해 ‘교양인’과 ‘상식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⁴¹⁾

도서관이 만인에게 평등한 ‘지식의 전당’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편견 없이 다양한 시야의 장서더미를 쌓아나가야 한다. 좌와 우, 서구와 동양, 남자와 여자, 노동자와 자본가 등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장서더미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튼튼한 실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관이 성립되어야 한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립과정은 생략한 채 탈 실물자원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술의 진보’와 ‘서구화’를 통해 내용 없는 형식만 근대화하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도서관을 누가 세워 나가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 단계에서는 주민운동 차원에서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주민운동은 그 성격에 따라 세 단계로 발전과정을 유형화 할 수 있겠다.⁴²⁾

첫 번째 단계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형 운동’이다. 이 운동은 주민운동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를 넘어서서 주민일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는 ‘대안제시형 혹은 시민대변형 운동’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과 이를 위한 대안적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첫 번째 유형보다는 선진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적 운동’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마을과 생활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이 유형의 주민운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주민의식이 필요한 주민운동이다.

도서관 운동은 세 번째 단계의 운동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주민(이용자)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양체계와 지식체계를 넓히고, 인간이 존중되고 지적문화가 설 땅을 찾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즉 지역주민이 주체로 일어나 그들이 필요한 도서관을 세워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 가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자는 그 모델을 창원이라는 도

41)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한울, 1999. 207-208쪽.

42) 이호, 「변화하는 도시사회의 주민운동」,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서울: 발언, 1996. 287-289쪽.

시에 만들고자 지난 7-8여 년 동안 도서관 세우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주민(이용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이용하는 과정 없이, 광복 이후 행정가들에 의해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해 왔기에 주민이 중심에 서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기 전 나의 의식세계는 다음의 현장사서가 말하는 입장과 동일하였다.

나는 도서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던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도서관의 지류를 논해도 결국은 정부의 행정과 도서관정책, 사회구조, 시민들의 의식, 기타 등등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벽으로 보인다.⁴³⁾

지금 나의 의식세계는 도서관의 문제, 특히 공공도서관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지 확신이 서 있다. 그것은 주민들 속에서 찾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구조와 도서관에 대한 이용경험은 전근대를 살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내용을 채워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이용경험을 일상화시켜 나가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 일은 지역주민, 사서, 문헌정보학 연구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튼튼한 이용자군이 확보되면 오늘날 산적한 도서관의 현안 문제는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사람들이 우군이 되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나는 문헌정보학을 강단에서 강의한지 17년째를 맞고 있다. 강의를 시작한 처음 10년간은 미래는 지금보다 도서관 문화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보다 도서관 문화가 앞선 서구를 동경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였다. 곧 우리 사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도서관현장도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리의 현장은 과거

43) 이학건, 「사서 공동체마을 제안」, 『도서관매일링리스트』, 1999년 11월 15일.

44) 현단계 우리의 도서관은 기본 이용자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그들의 삶에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장운동이란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유용성에 대한 이용경험을 일상화시키는 데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양재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대구: 태일사, 2000. 129-178쪽.

에 비하여 도서관 숫자와 직원수가 늘어나고, 컴퓨터가 들어오는 현상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도서관이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일상의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 단계에 대한 관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학문론은 현장성과 실천성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 도서관 현장의 실체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된 사실이 있다.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는 도서관 현상이 살아 있으며, 이것을 끌어내어 어떻게 조직화하느냐가 '도서관 운동'의 핵심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7-8년 간 도서관의 실체를 주민운동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데 매달렸다.⁴⁵⁾

이러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조동일의 학문론을 다시 떠올리곤 한다. 우리 문헌정보학은 서양학문 가져와서 자랑하는 '수입학'과 서양학문 가져와서 나무라는 '시비학'의 범주를 벗어나,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도서관 현상들을 찾아내어 해결할 이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자립학'으로 나아가며,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넘어서는 '창조학'으로 나아가, 우리의 현장이 우리 일상의 삶에 바탕을 둔 튼튼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 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서울 : 한울, 1999.
- 김영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실천성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9집 (2000), 29-46쪽.
-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996.
- 김정근 엮음.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 갈 것인가」. 대구 : 태일사, 2000.
-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요지』. 1996년 6월 21일 - 22일. 5-18쪽.
- 도태현.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당면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자료집』, 2000년 6월 23일. 1-15쪽.
- 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대구 : 태일사, 2000.
- 윤희윤. 「한국 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2호 (1999. 6), 29-54쪽.

45)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한 권의 책을 간행하였다. 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대구 : 태일사, 2000.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 한울, 1998.
- 이혜연.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공학회 교안 모임」, 1997. 9-13쪽.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1992.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3. 81-112쪽.
-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7-14쪽.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2000.
- 한상완. 「문명사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과 전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설립 20주년 기념강연회 자료집」. 2000년 5월 20일.
- Barritt, L. S. 외. 「教育研究와 現象學的 接近」. 洪基亨 譯. 서울 : 文音社, 1990.